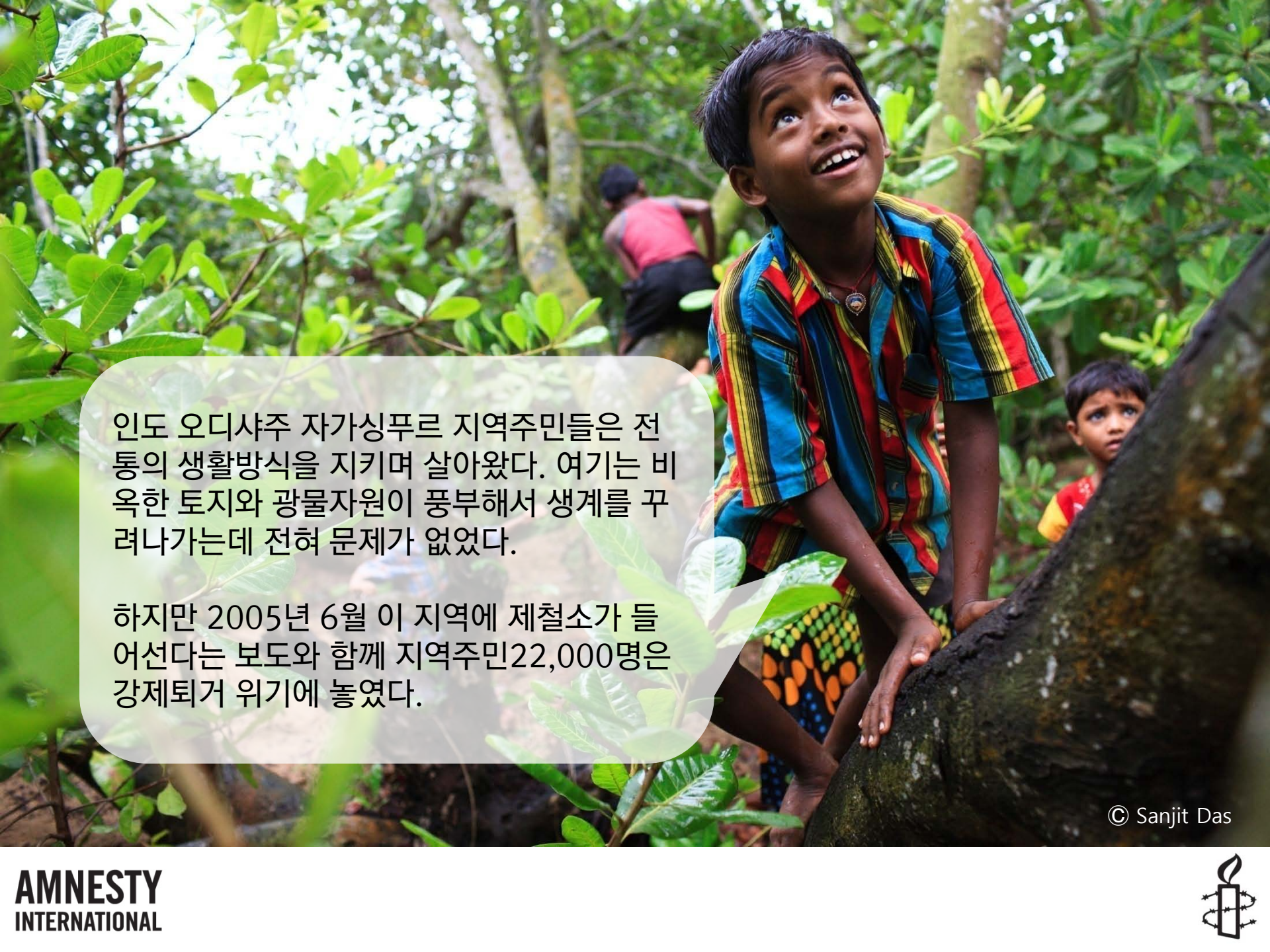


**당신이 몰랐던 포스코,  
POSCO-India Project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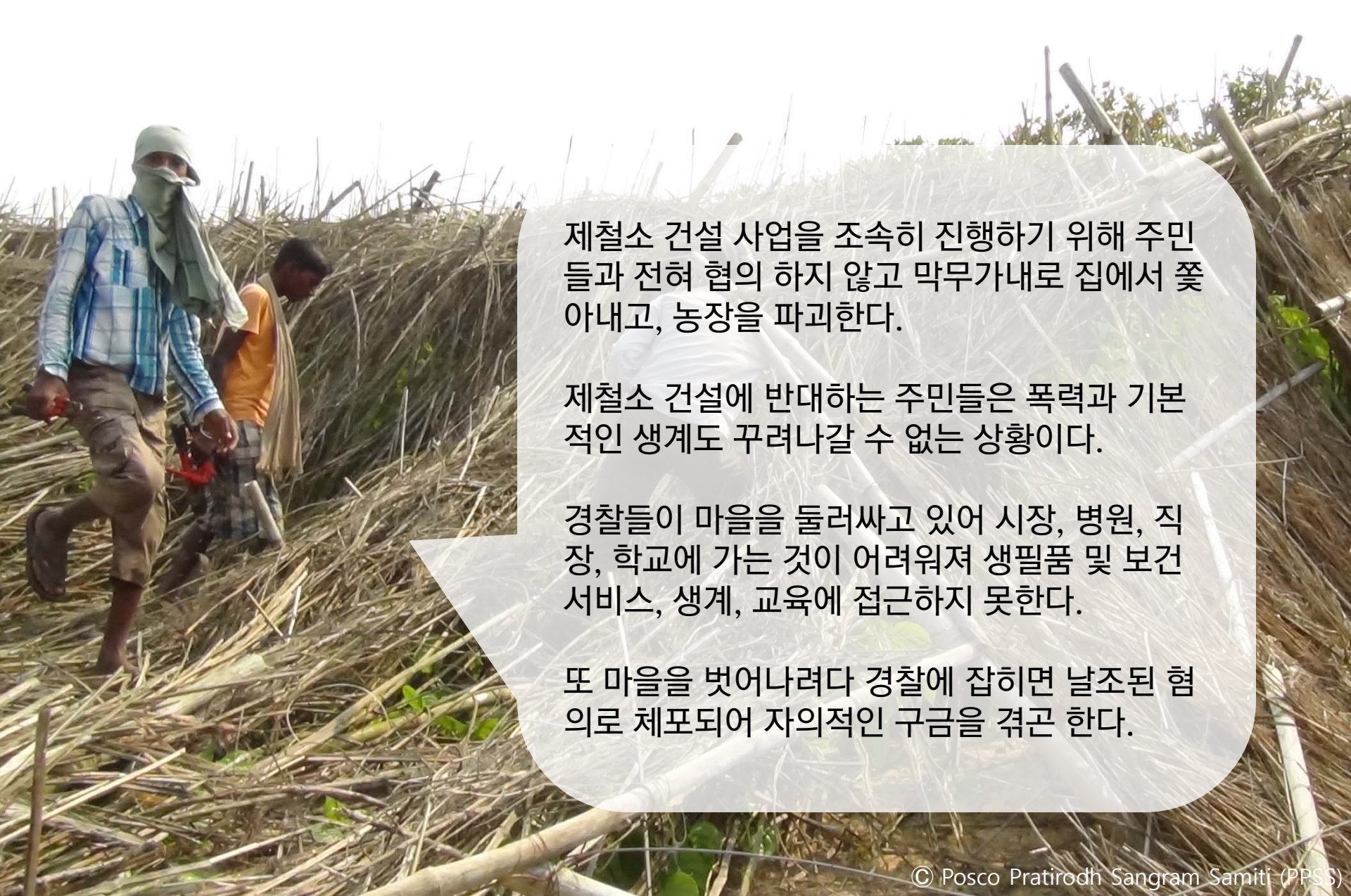




인도 오디샤주 자가싱푸르 지역주민들은 전통의 생활방식을 지키며 살아왔다. 여기는 비옥한 토지와 광물자원이 풍부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.

하지만 2005년 6월 이 지역에 제철소가 들어선다는 보도와 함께 지역주민 22,000명은 강제퇴거 위기에 놓였다.

© Sanjit Das



제철소 건설 사업을 조속히 진행하기 위해 주민들과 전혀 협의 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집에서 쫓아내고, 농장을 파괴한다.

제철소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폭력과 기본적인 생계도 꾸려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.

경찰들이 마을을 둘러싸고 있어 시장, 병원, 직장, 학교에 가는 것이 어려워져 생필품 및 보건 서비스, 생계, 교육에 접근하지 못한다.

또 마을을 벗어나려다 경찰에 잡히면 날조된 혐의로 체포되어 자의적인 구금을 겪곤 한다.

© Posco Pratirodh Sangram Samiti (PPSS)

제철소 부지 마을 중 52개 마을 주민들은 버티다 못해 임시수용소로 이주했다.

하지만 임시수용소 생활은 열악하다. 식수, 주거, 보건, 교육, 일자리 등에 접근하기 어렵다.

특히 스스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어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이 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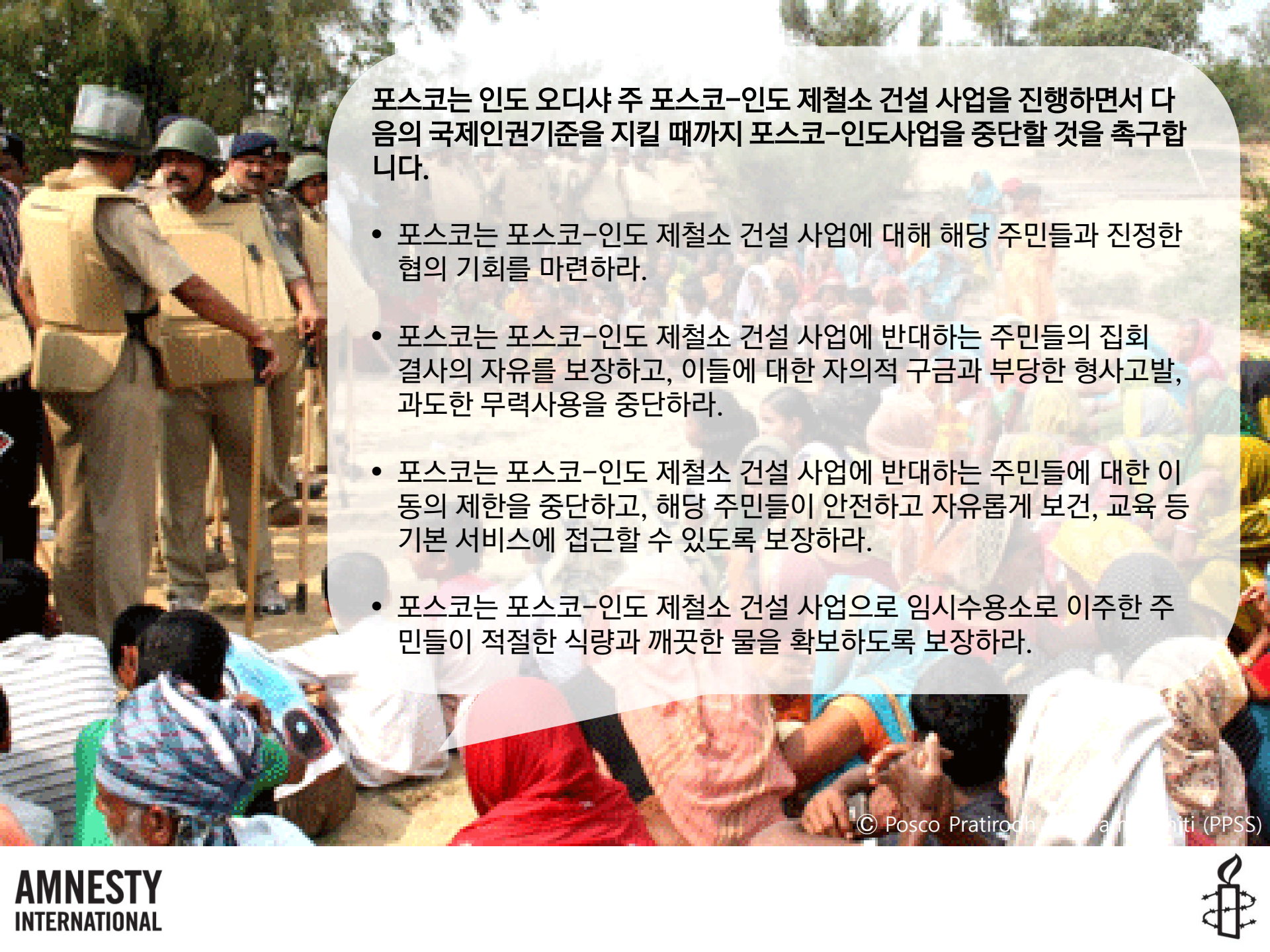
© Sanjit Das





© Video Volunteers





포스코는 인도 오디샤 주 포스코-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음의 국제인권기준을 지킬 때까지 포스코-인도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.

- 포스코는 포스코-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에 대해 해당 주민들과 진정한 협의 기회를 마련하라.
- 포스코는 포스코-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, 이들에 대한 자의적 구금과 부당한 형사고발, 과도한 무력사용을 중단하라.
- 포스코는 포스코-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에 대한 이동의 제한을 중단하고, 해당 주민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보건, 교육 등 기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.
- 포스코는 포스코-인도 제철소 건설 사업으로 임시수용소로 이주한 주민들이 적절한 식량과 깨끗한 물을 확보하도록 보장하라.

© Posco Pratirodh Samanvay Samiti (PPSS)